

2020년 제5회 손잡고 회원총회 기록

날짜: 2020년 3월 25일 오후 7시

장소: 인권재단사람 2층 다목적홀 한터

참여: 배춘환, 박래군, 박병우, 송영섭, 윤지영, 이양구, 윤지선(활동가), 차홍선(속기), 회원(김동수 님) 9명, 위임(회원 54명)

총회 진행 : 박래군 운영위원

총회 의장 : 배춘환 상임대표

○ 순서

1. 개회선언

2. 2019 활동보고

3. 2019 재정보고

4. 안건 및 승인

- 제1호 의안 : 2019년 회계, 업무감사 보고 및 승인

- 제2호 의안(1) : 2020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승인

- 제2호 의안(2) : 2020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 제3호 의안 : 임원 및 감사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기타 의안

5. 폐회

○ 기록

1. 개회선언

박래군 : 회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회 의장 배춘환 대표가 총회 성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배춘환 : 총 9명 참석, 위임 54명으로 총회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알립니다.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래군 : 의장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배춘환 : 작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것 같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19로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절차상 총회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위임을 해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동수 회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박래균 :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손잡고 활동보고는 윤지선 활동가가 해주세요. 자료집 5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윤지선(활동가) : 활동보고 부분은 자료집 8페이지에 전체사업 부분부터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활동성과와 활동평가 등 보고)

박래균 : 38페이지에도 활동평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활동평가와 총평이 이어지고 있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 중에 특이했던 부분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서 전략적 원천봉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서 심의에 부쳤는데 그것도 역시 법사위에 발의만 되어 있고 심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가 문화행사를 기획했었는데, 연극제, 사업비가 있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했지만, 일본에 한일문화교류에서 연극 ‘노란봉투’가 선정되어 활동가가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손배가압류를 배워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배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제도개선 부분에서 국회에서의 움직임이 없었다보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수(회원) :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 내용이 어떤건가요?

윤지선 : (법안 설명)

박래균 : 자료집 92페이지에 보면 2018년에 발의를 했던 해당 법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참석자 일동 : 없습니다.

박래균 : 다음은 재정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윤지선 : 자료집 57페이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보고 설명) 질문이 있으실까요?

박래균 : 원종복지관 관련해서 진행한 모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윤지선 : 전태일 재단의 통장을 활용해서 한 공동모금사업이라 손잡고의 수익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박래균 : 질문 있으십니까?

참석자 일동 : 없습니다.

박래균 :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의장님께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춘환 : 회계보고서와 업무보고서를 각각 담당 감사님에게 보내 자료집과 같이 감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먼저 박병학 회계감사님의 감사보고서입니다. 보고 관련하여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석자 일동 : 없습니다.

배춘환 : 질문 없으시면 동의하시는지요?

참석자 일동 : 동의합니다.

배춘환 : 그럼 승인함을 알립니다. 64페이지에 2020년 업무 감사보고가 있는데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박래균 : 업무감사보고서에 '정관개정'에 대한 권고가 있는데, 정관에 따라 매달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어떨지 김도형 업무감사가

권유했습니다. 운영위 회의를 통해 정관개정 없이 가급적 매달 운영위회의 개최를 최대한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배춘환 : 네, 운영위원단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업무감사보고에 동의하십니까?

참석자 일동 : 네, 동의합니다.

배춘환 : 그럼 승인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안에 대한 보고 및 승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계획안은 박래군 운영위원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래군 : 올해는 가급적 법제도개선활동에 집중해서 해보고자 했는데도 사업 갈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가 구성되는 해라서 초반에 노란봉투법과 괴롭힘소송금지법이 다시 21대 국회에 발의되고 입법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해보기로 운영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사업 계획의 가닥을 잡았다는 것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65페이지 동그라미 1번부터 있는 것입니다.(자료집 65페이지부터 사업계획안 설명)
이어서 예산안도 설명하겠습니다. (68페이지부터 사업예산안 설명). 이렇게 2020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립니다.

배춘환 : 혹시 궁금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지영 운영위원 : 그러면 이월자산이 잡혀있고 그것을 올해 다 소진을 하는 것인가요?

윤지선 : 네, 매년 예산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예산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끼고, 이번에는 공모사업을 최대한 지원해 사업비를 외부에서 확보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우 : 감시활동을 위해서는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윤지선 : 이번에 700만원, 소송기록 자료를 아카이빙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공모로 피해자 구술기록을 위한 사업계획안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니다.

배춘환 : 이런 아카이브 작업들이 손잡고의 활동으로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그와 관련한 것들이 감시활동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지선 : 인적자원으로 모의법정을 5년 정도 하면서 참여했던 법조인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해 활동위원회 역할을 확대해보고자 합니다. 활동위원회를 통해 내실을 강화하는 활동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배춘환 : 질문 더 있으십니까?

참석자 일동 : 아니오.

배춘환 : 2020년 사업계획안에 동의하십니까?

참석자 일동 : 네, 동의합니다.

배춘환 : 2020년 사업계획안 승인을 알립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동의하십니까?

참석자 일동 : 네, 동의합니다.

배춘환 : 2020년 예산안 승인을 알립니다. 이제 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래균 : 다음 안은 임원 및 감사 승인의 안입니다. 먼저, 대표로 배춘환 대표의 연임을 승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참석자 일동 : 동의합니다.

배춘환 : 2년마다 대표를 새로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하면 연임을 하게 됩니다.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래균 : 다음은 운영위원 승인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해 박병우, 송영섭, 안진걸,

유금분, 윤지영, 이남신 운영위원의 연임을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동자 상담을 하시는 유금분 운영위원은 코로나19 접촉여부로 자가격리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안진걸 운영위원도 생방송 시간과 겹쳐 부득이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석자 일동 : 동의합니다.

배춘환 : 네, 승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래균 : 신임 운영위원으로 신인수 변호사님과 노란봉투를 제작하셨던 이양구 연극인을 신임 운영위원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신인수 변호사님은 법제도개선과 관련한 활동을 보강하기를 위해, 이양구 연극인은 손배가압류 문제를 대중적으로 풀어낼 역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신임 운영위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배춘환 : 신인수 변호사님을 추천해주신 송영섭 변호사님이 추천 말씀을 해주시면 동의를 받고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운영위원 : 신인수 변호사는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점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손배가압류에 대해서도 직접 담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 노동법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핵심인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계신분입니다. 올해 손잡고에서 법제도 자문을 활발하게 하려는 계획이 있어, 신인수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실무 경험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배춘환 : 동의하십니까?

참석자 일동 : 네, 동의합니다.

배춘환 : 승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양구 작가님 직접 인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양구 운영위원 : 손잡고와 관련해서 공연장 등에서 활동기반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선 : 문화기획위원회를 담당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로 기자회견 등에도 다양한 퍼포먼스를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배춘환 : 동의하십니까?

참석자 일동 : 네 동의합니다.

배춘환 : 네, 승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운영위원 모두 환영합니다. 다음은 감사 승인입니다.

윤지선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김도형 업무감사님이 지난 4회 총회를 통해 연임을 해주셨는데, 올해 일신상의 이유로 감사활동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임기 종료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박래군 :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이태호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업무감사로 추천했습니다.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자, 현재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외 시민사회 내 다양한 활동으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손잡고 업무감사도 무리없이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춘환 : 이태호 선생님을 신임감사로 선임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참석자 일동 : 동의합니다.

배춘환 : 그럼 임원 및 업무감사 승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안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수 회원 :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손배가압류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 아닌가요?

윤지선 : 손배가압류와 관련해서는 큰 진전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법무부별로 적폐청산 관련 권고안이 나왔는데, 각 기관에서 노조탄압 방관, 국가폭력 인정 및 사과를 하지만, 바로잡기 위한 권고안에 대해서는 이행하겠다는 어떠한 약속

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손잡고와 문제의식을 함께하는 단체와 같이 유관 기관이 권고안을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손배가압류 현황 정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최근들어 특수고용노동자나 비정규직을 향한 손배가압류 등 점점 더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손배 사유로 기자회견이나 일인시위를 SNS 공유했다는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가압류를 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수 : 어차피 법률적으로 이걸 폐지하는 것이 손잡고의 목적인데, 손배가압류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노동이라는 골자로 해서 더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동이라는 큰 부분에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사회 공동체에 필요한 역할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박래균 : 20대 국회 환노위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고 심지어 노동법을 개악하려고 했었습니다. 이후 기존의 기조대로 간다면 손배가압류 같은 경우는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고도 보이는 것입니다.

김동수 : 60~70~80년대 노동운동과 기업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손배가압류가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그래서 이 문제를 넘어서는 이슈도 고민해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윤지선 : 네. 우선 정관상 목표인 입법부분을 꼭 쟁취를 해보고, 그 이후에 이야기를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춘환 : 손배와 관련해 성격이 달라졌지만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회원님께서 의견주신 부분은 저희가 물론 귀담아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참석자 일동 : 아니오.

배춘환 : 이상으로 제5차 회원총회를 마치겠습니다.

